

一、請將下文譯成中文：(60%)，每題 15 分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 대통령 출석 및 증인 소환 등 증거조사 문제를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측간 물밑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은 6월 오후 대리인단 전체회의를 열고 노 대통령의 출석불가 입장문을 재확인했으며, 소추위원측 증거조사 신청목록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해자역 의견서를 바르면 오늘중 현법재판소에 제출키로 방침을 짚했다.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대통령 불출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추위원측 증거신청을 봐가면서 러벌 학자나 경제학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은 고려했지만 원내보선 우익측에서 증거신청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도 현재로부터 증거 조사 신청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받은 측근비리 관련 협사기록 등에 대한 사건번호, 암호취지, 해당 기관을 명시한 보강문서를 7일동 제출하기 위해 6월 모후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 소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영학관문기, 《연암집》에 수록되어 있다. 1780년(경조 4) 삼종형 박명원의 수행원으로 철나라 고종의 철순연을 축하하기 위하여 중국에 들어가, 성경·베이징·경하 등지를 여행하고 돌아와 그곳 문인·명사들과의 교류 및 문물제도를 청한 결과를 기록한 여행일기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암 초설의 주요내용은 독정을 이루는 것은 풍자적 성격과 사실주의적 득점이다. 연암에 있어 풍자란, 종세적 봉건 사회가 무너져 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움직임이 짹드기 시작하는 역사적 변화의 시대에 살면서, 그 모든 추억들을 적시했던 비판적 태도로 나타난다.

3. 최근 들어 우리의 문학상 제도는 수상을 둘러싼 주문만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과정은 헌날 청언일 뿐 실제로는 수상작의 작품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조차 찾아볼 수 없고, 타문학상과의 면별성을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각 문학상마다의 고유한 특성은 선종된 차례연례에서 염두를 늘리거나 수상작품집의 대중성 확보에 몰입 놓리는 것이 지금 당면한 문학상 제도의 현실이다. “미성분작상”的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높이하게 드러내고 있다. “요절한 천재 작가 이상이 남긴 문학적 업적을 기려”겠다는 문학상 본래의 취지가 보색된 시는 이미 오래됐고, 수상작품집의 출간이 “문학사상사”的 경제적 배경이 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힐만큼 심합격 이해관계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문학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제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수상작이 차닌 문학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4. 신세대 작가를 대표해 순수·세내 논쟁에 이론기로서 참여했던 김동리는, “문학이란 사람이 제 생명의 구경식 의약을 담고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이것을 추구하는 세대가 신세대 작가라고 하였다. 그동안 프로작가는 문학주의라는 이름의 노예가 되어 그러한 문학 정신이 보여지 않았는데, 신세대 작가에게 각자의 개성과 생명의 구경의 실연에서 빛어진 그 어떤 인간고의 표현이 보이며, 문학 정신의 삶이란 지향의 차별에 따라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인다고 말한다. 또한 계율록의 「백자아다」를 개성의 신비를 찾는 로맨티시즘이 보이는 작용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는 「우녀도」를 힘으로 둘며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구경을 추구하여 믿은 한개의 도량정이 “모화”란 새 인간형의 창조였음을 밝히고 있다.

二、請將下文譯成韓文：(40%)，每題 20 分

1. 根據報導，直屬總統的教育革新委員會正在研究引入“國立大學共同學位制”，根據這個方案，學生可以在不同的大學裡聽課，並且能拿到幾個大學校長簽名的畢業證書。據說甚至在研究能轉學的方案，這不僅僅是單純的學分學期制，而是要讓國立大學放入平均化的框架內。如果有人說要廢除中國的北京大學、清華大學，或把日本的東京大學不均化，那麼別人一定會說這個人瘋了。但是，現在我國政府正投入巨額預算，試圖要做過種蠢事。我們只好承認這個國家並不是處在 21 世紀，而是仍停留在 19 世紀。現在正是以國家人力資源的質和量，來決定一個國家的競爭力和國民生活的時代，但政府卻一直在推進這種奇怪的政策，真是令人焦慮。已成為世界級大學的中國清華大學，他們所培養的精英們正在引導中國的產業化，日本也在進行國立大學的法人化，並使大學之間展開激烈競爭。我們政府的任務就是與這些國家競爭，並照顧國民。我國漢城大學排在世界第 150 位左右，這樣的漢城大學怎麼能稱得上是一流的呢？

2. 憲法裁判所對於在中等教師資格考試裡給予出身師範大學的人追加分的非行制度，做出了違反《憲法》的決定。因為該制度的實行根據並非國會制定的法律，而僅僅是教育部令。如果廢除實行 10 多年的追加分制度，會對依靠追加分制度，並在師範大學或普通大學教育系求學的 4 萬多名大學生造成嚴重影響，而且還有可能動搖師範大學存在的基礎。教育部應該尋求有效對策，至少避免目前就讀於師範大學的學生，因為憲法裁判所的決定而權益受到損失。同時，教育部和教育界還應當把憲法裁判所的此次決定，當作重新考慮教師任用制度的契機。因為，很早以前就有人提出，過分排斥非師範大學畢業生會把那些能力突出的人才擋在教師門檻之外。如今，讓那些有社會經歷的專家到學校任教已經成為世界的時代趨勢。例如，在企業、研究所等專業領域工作的博士可以去科學高中教物理、化學。在文壇取得成就的小說家可以把自己的後半生獻給學生。只要有這樣的機會，很多人都會願意走進學校，為培养未來的接班人而貢獻自己的力量。但是在目前的教師任用制度下，根本不可能實現這些理想。如果私立高中要聘請博士，教育廳會因沒有教師資格証而拒絕審核要求，這就是我們國家的現實。我們應該讓那些有豐富閱歷和生活經歷的人們到學校任教，這樣才能加強教師的競爭力，並提高學校教育的質。

I. 回答題

한글을 창조하신 위대한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좌의정(左議政:李朝官位) 김종서에게 고려의 역사책인 [고려사]를 편찬하라는 명을 내렸다.

김종서는 그 일을 하면서 항상 책과 활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글을 썼다.

함께 편찬 일을 하는 청인지가 이상하게 여겨 그에게 물었다.

“책과 활을 항상 앞에 놓고 계시니, 누가 대답의 목숨을 노리기라도 합니까?”

김종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의지가 약해서 자칫하면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면 나쁜 마음이 기어들고, 그 나쁜 마음이 정신을 비틀어지게 하여 결국 나를 죽일 게 아니겠습니까? 이 활은 내 마음이 약해지고 버풀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이 글의 주제(主題)를 간단히 쓰세요. 20%

2. ‘놓고 계시니’ 10%

(a) ‘계시니’的原形---

(b) 用‘...니’造句

3. ‘나쁜 마음이 정신을 비틀어지게 하다.’ -- 韓翻中 10%

II. 作文題

1. ‘내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강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써보세요.’ 30%

2. 읽은 책(中文) 중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책은 무슨 책인지 책 이름과 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30%

所(組)別：韓國語文學系碩士班

考試科目：韓語語法

답안지에 1.1. 같은 숫자를 배기고 답하기(중국어로 대답해도 좋습니다.)

— 다음 밑줄 친 부분을 각 문장에 해당한 의미로 설명하시오. 88%

1.

며칠 전 우체국에 가서 친구에게 편지를 부쳤다. 바로 옆동네였기에 다음날쯤 편지가 도착할 끝 알았다. 그러나 4월이 지나서야 친구에게 편지가 도착했다는 걸 알았다. 같은 서울 시내라 늦어도 이들이면 도착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웬말인가.

- 1.1. -에
- 1.2. -마지
- 1.3. -에
- 1.4. 줄
- 1.5. -여야

- 1.6. -과
- 1.7. -어도
- 1.8. -지
- 1.9. -는데
- 1.10. -개

2.

사람은 자주 마보가 되어 가는 것일까. 컴퓨터에서 슈퍼 컴퓨터로, 여기서 더 한 발 앞서 가면 정말 '생각하는 컴퓨터'가 科學小說의主人公만은 아닐 것 같다.

2.1. -어 가다

2.2. -에서 -로

3.

어느 육십 많은 개 한 마리가 고깃덩어리를 구해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개는 다리를 건너면서 힘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 물속에도 자기와 똑 같은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개가 사기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3.1. -에
- 3.2. -교

- 3.3. -으로
- 3.4. -계 되다

4.

바나나 험길은 노랗지만 속살은 하얗다. B 美國을 비롯 白人社會에 맹목적으로 적용하려는 한국인을 현지에서 '바나나'라고 속칭한 것을 보았다. 백인 주인에게 맹종한다는 뜻에서 '황색 영글 봄'이라고도 암시하여 불렀다. 교포 2 세는 거의가 바나나가 돼 있음을 비단 미국뿐만이 아닐 것이다.(이규래 한국인의 의식구조)

4.1. 시만

4.2. -에게

5.

일전에 서울 종로 어느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C 깨끗하고 친절한 곳이었다. 다리를 쭉 벗겨 하고 주물러 주기도 했다. 예쁜 여종업원들이 손톱을 깎아 주고, 손가락을 잡아 당겨서 딱딱 소리를 나게 하기도 했다. 나는 기분이 좋았으나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다.

- 5.1. -에
- 5.2. -계 하다

- 5.3. -느냐
- 5.4. -기도 하다

— 위 3. 4. 5.에 밑줄 친 문장의 주어를 지적하시오. 12%

A.B.C